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깨달음에 이르는 길

승려는 많으나 구도자는 줄고 있다. 구도자는 있으나 깨달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 불교계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에는 해마다 결제 철이 되면 100여 개의 선원에 2000여 명의 스님들이 모여 정진하고 있다.

일생을 오롯이 한길로 매진해온 수행승들도 수두룩하다. 무문관 선원이 날로 늘고 있고 결제와 해제에 상관없이 용맹 정진하는 구도자들이 불교의 밝은 미래의 희망이 되고 있다.

말이 쉽지 선원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의 시간을 잊는 간절심의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100여 곳의 넘는 선원에서 정진하는 2000여 명의 스님 중 깨달음을 이룬 선지식 소식은 쉽게 들려오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깨달음을 이룬 뒤 숨어버리는 은둔자가 있을는지 모를 일이나 깨달음의 생명력은 중생교화로 모아져야 아름다운 회향이 되는 것이다.

선지식(善知識)이란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요, 착한 벗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참사람을 의미한다. 버리고 비우며 나눔을 생활화 하는 평화로운 사람. 행복과 자유의 참주인공이 참사람이요 선지식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선지식은 명예와 재색(財色)으로 윤회하지 않는다.

막힘과 걸림이 없는 자유인으로 누구에게나 빛이 되고 이웃이 되는 참사람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편안한 것이다. 다툼과 경쟁이 없는 평화이다.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중생 곁으로 되돌아오는데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흔들릴 때는 흔들리는 자의 손을 잡아 중심을 잡게 하고 헐떡일 때는 헐떡이는 자의 벗이 되고 이웃이 되어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길의 진정한 의미의 안내자가 되어야한다. 막힘과 걸림이 없는 자유인으로 선지식은 선지식다워야 참다운 선지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만들어지는 선지식이 늘고 있다. 세월이 흐르다보면 선원의 안거(安居)경력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대접 받는 문화가 그 둘레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가 선원장까지 겸직하는 풍토도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림자이다. 거기다가 화두(話頭)가 전형화 되어 틀에 박힌 정진 형태에 년륜(年輪)만 쌓여가는 병 아닌 병을 앓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화두는 당송(唐宋)시대에 만들어진 화두가 아니라 개개인의 주어진 현실의 의심덩어리가 참 화두인 것이다.

육조(六祖) 혜능은 더벅머리 총각의 행자시절에 선지식으로 인정되어 중국 선불교(禪佛敎)의 참 스승이 됨을 잊지 말 일이다.

쌓여가는 안거 경력보다 날마다 새 출발하는 간절심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수행이 관습화 되고 생활처럼 선원에 앉아 세월을 삭힌다면 행자 혜능의 육조 출현은 영원한 전설로 남을 터이다.

한국불교의 선원 구조는 구참(舊參)과 신참(新參)이 어우러져 짜여진 시간표 따라 죽비소리에 길들여지는 안일함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선원의 지도자인 조실(祖室)과 방장(方丈)이 문중위주로 자격이 주어져 투표로 결정되는 희극 같은 해프닝이 엄존하는 현실이다. 수행력과 법력(法力)이 투표로 저울질되는 슬프디 슬픈 현실에 선지식 출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도자는 있으나 覺者는 드문 현실
간절함이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길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자라는 법이다.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선원의 풍토에 전통과 관례마저 흔들린 지 오래이다.

법력(法力)에도 서열이 있고 조실, 방장에도 조직의 세력화에 기우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다보니 활발발(活潑潑)했던 법거량(法擧量)이 자취를 흐리며 자신감마저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중이 스승이고 대중의 뜻이 부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승가 공동체의 공통분모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깨달음을 위해서는 또 다른 발심의 또 다른 출가를 해야 한다.

대중의 처소에서 습의(習儀)를 익힌 다음엔 무소의 뿔처럼 홀로 외길을 가는 간절심의 정진(精進)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자연을 스승으로 체험을 도반으로 길에서 길을 걸으며 길을 찾는 진정한 의미의 간절심이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 길임을 잊지 말 일이다.

우치재(愚癡齋)를 지낸 이야기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불교의 전통의식 가운데 재(齋)를 지내는 풍습은 매우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행해지는 의식(儀式)이다. 재는 범어 우포사다(Uposadha)를 번역한 말인데 본래의 뜻은 신(身)·구(口)·의(意) 삼업을 정제(整齊)하여 악업이 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말이 전어(轉語)가 되어 식사(食事)를 뜻하는 말이 되어 정오를 넘기지 않는 식사를 재라 하였다. 그러다가 또 뜻이 조금 달라져 법회 때 대중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재라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도 재라 하게 되었다. 불공을 드리는 것을 재를 올린다고 하였으며, 또 요즈음 와서는 죽은 사람을 천도하는 것을 재라고 하게 되었다. 49재나 천도재, 수륙재 등은 흔히 쓰는 말이다. 천도(薦度)는 천혼(薦魂) 또는 천령(薦靈)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이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부처님이나 보살들에게 재를 올려 영가(靈駕: 영혼)들로 하여금 극락등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의식이다. 주로 망인을 두고 천도한다 하고, 살아 있는 사람들은 제도(濟度)한다고 말한다. 재를 지내는 것이 중생회향(衆生廻向)에 해당한다. 중생이라는 말은 부처와 상대되는 깨닫지 못한 불각의 상태에 있는 범부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죽은 이를 두고도 중생이라 한다. 그러니까 육체의 목숨이 붙어 있는 살아 있는 상태의 생물학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다. 영가를 천도하는 것도 중생회향이라 한다.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지내는 재다.

그런데 죽을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을 위하여 재를 지내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우치재(愚癡齋)라고 한다. 말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을 일깨워 준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치하고 몽매하여 지혜의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 세속적인 정에 얽매여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을 오히려 죽을 사람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하기 위하여 지내는 재이다.

이 우치재를 지낸 유명한 스님이 바로 중국 선종 가운데 조동종을 개창한 동산 양개(洞山良价807~869) 스님이다. 우리나라 고려대장경에만 수록되어 있는 『조당집(祖堂集)』에 의하면 어느 날 동산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 법문을 하다가 갑자기 대중에게 지금 바로 자신이 열반에 들겠다 말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이에 깜짝 놀란 대중이 너무나 당황하여 울음을 터뜨려 법당 안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런데 이 상한 일은 숨을 거두었던 양개 스님이 얼마 후 다시 깨어나 대중을 조용히 달랬다는 것이다. 자신이 입적하는 것을 슬퍼하거나 울음소리를 내지 말라 하였다. 대중이 조용해지자 스님은 다시 숨을 거두었다. 얼굴빛이 다시 사색이 되는 것을 보고 대중이 다시 울음을 토했더니 한참 만에 양개스님이 다시 깨어나 하는 말이 "안 되겠다. 내가 오늘 가려 했더니 대중이 소란을 피우니 할 수 없이 입적하는 날을 일주일 연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원주를 부르더니 저자에 가서 재를 지낼 시장을 봐 오라고 명을 하였다. 이리하여 일주일 동안 재를 지내며 대중과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하게하고 양개 스님은 일주일 후에 열반에 들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치재라는 이름이 생겼다 한다.

종교적 신앙이 깊은 사람은 죽음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사성제 법문에서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죽음 또한 괴로움이라 하였다. 그러나 생사를 초월한 사람은 괴로움을 괴로움이 아닌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하였다.

삼국유사에는 원효스님이 사복이와 함께 사복이 어머니 장례를 치루면서 했다는 영가법문 이야기가 있다.

"태어나지를 마시오, 죽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죽지를 마시오.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입니다."(莫生兮也 其死也苦 莫死兮也 其生也苦)

그런가 하면 부처님의 십대제자 가운데 지혜가 으뜸이었던 사리불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는 것을 원하지도 아니하고 죽는 것을 원하지도 아니한다. 품팔이가 품삯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내게 올 인연을 기다릴 뿐이다. 나는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비심엔 능히 즐거움이 생긴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⑱ 자비심이 주는 즐거움

愛悲勝品第二十五

施緣取。取緣愛。有愛則有取。無愛則無取。有悲必有捨。無悲亦無捨。愛故取增長。捨故悲增長。愛恩者生愛。是過患怨則增長悲心。愛增長㘝自己樂則害他。悲增長能與他樂自己則苦。愛增長而害他者則非希有。悲心者捨己身命而與他人。是㘝希有。愛著者名愚賤人。常在貧窮受諸苦惱。有悲功德者常處富貴。貪愛者可得斷絶。有止足時得智慧則能斷絶止足。得悲心者無有止足。常施他故° 愛心者能招集一切諸苦成大苦聚。悲心者能生一切功德。若悲不捨不淨業者我所不欲。設悲不能救濟我亦不欲。若悲不樂求菩提亦非我所欲。愛心者能生一切苦。悲心者能生一切樂。從悲起身口業者。名㘝勝業。悲心者能㘝一切眾生作無盡樂。

번역 | 애비승품 제25
베품을 인연으로 취함이, 취함을 인연으로 애착이, 애착이 있음으로 취함이 있고, 애착이 없으면 취함도 없습니다. 자비가 있으면 반드시 희사가 있고, 자비가 없으면 역시 희사도 없습니다. 애착하므로 취함이 증장되고, 희사하므로 자비가 증장됩니다. 애착을 생각하는 이에게 애착이 생기는데, 이는 과오요 걱정이요 원수이니 자비심을 증장시켜야 합니다. 애착을 증장시켜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으면 타인을 해롭게 합니다. 자비를 증장시켜 타인과 더불어 즐거워함이 자기에겐 괴로움이라도 애착을 증장시켜 타인을 해롭게 함은 특별할 것이 없지요. 자비심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 타인에게 주는데, 이것이 희유합니다. 애착하는 이를 어리석고 비천한 사람이라 하나니 항상 빈궁하며 모든 고통과 번뇌를 받는데, 자비의 공덕이 있는 이는 늘 부귀에 처합니다. 탐욕과 애착을 단절시킴은 멈추고 족함이 있을 때 지혜를 얻어 단절시키며 멈추고 만족합니다. 자비심에는 그치고 만족함이 없나니 늘 타인에게 보시하기 때문입니다. 애착심은 능히 일체 고통을 불러 모아 크나큰 고통의 무더기를 이루지만, 자비심은 능히 일체 공덕이 생깁니다. 만약 자비롭더라도 희사하지 않으며 부정한 이라면 내가 바라는바가 아니요, 설령 자비롭되 능히 구제하지 않는 것도 내가 역시 바라는바가 아니요, 만약 자비롭되 보리를 구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 것도 내가 바라는바가 아닙니다. 애착심에 능히 일체 고통을 생기나니, 자비심에는 능히 일체 즐거움이 생깁니다. 자비심을 따라 몸과 입의 업을 일으켜야 수승한 업이라 하나니, 자비심은 능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다함없는 즐거움을 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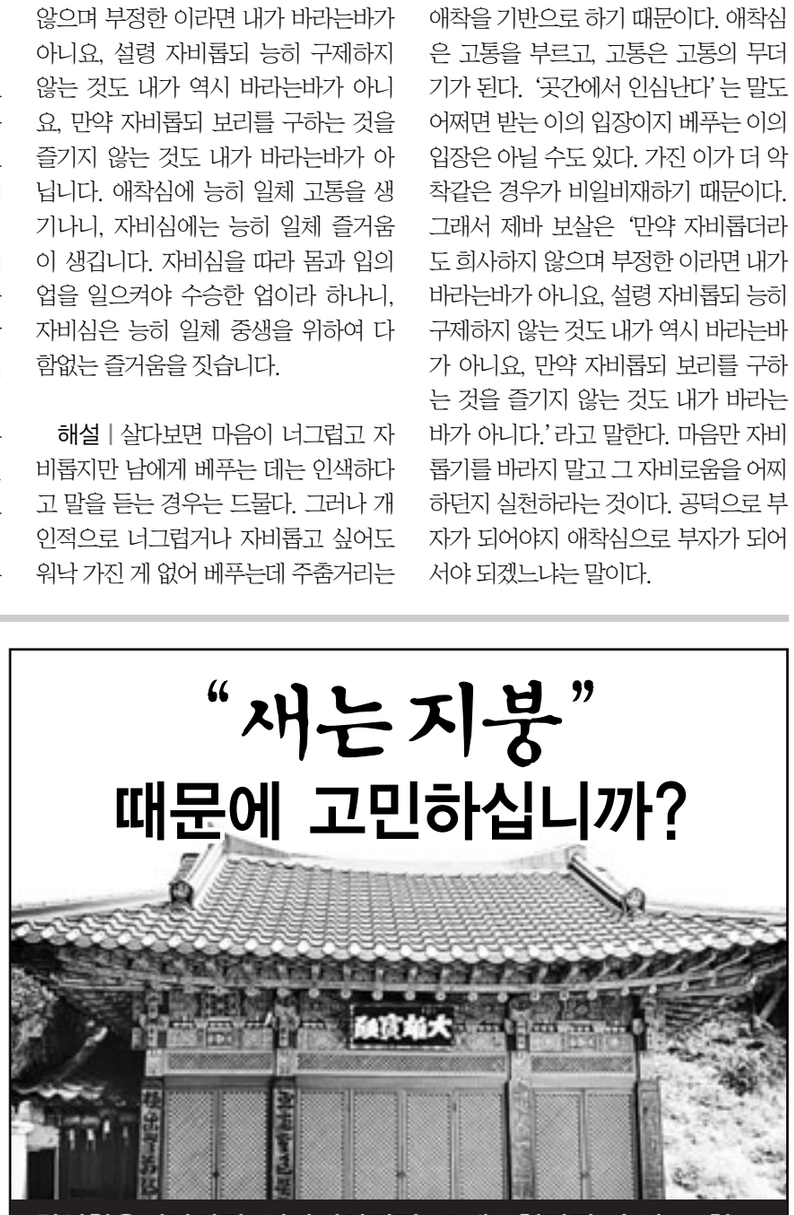
해설 | 살다보면 마음이 너그럽고 자비롭지만 남에게 베푸는 데는 인색하다고 말을 듣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너그럽거나 자비롭고 싶어도 워낙 가진 게 없어 베푸는데 주춤거리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것을 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현재를 걱정하고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사는 게 사람살이라서 악착같이 모으며 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악착같이 모은 것은 기쁨이기보다는 기실 괴로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질을 모은다는 것은 애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애착심은 고통을 부르고, 고통은 고통의 무더기가 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도 어쩌면 받는 이의 입장이지 베푸는 이의 입장은 아닐 수도 있다. 가진 이가 더 악착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바 보살은 '만약 자비롭더라도 희사하지 않으며 부정한 이라면 내가 바라는바가 아니요, 설령 자비롭되 능히 구제하지 않는 것도 내가 역시 바라는바가 아니요, 만약 자비롭되 보리를 구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 것도 내가 바라는바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마음만 자비롭기를 바라지 말고 그 자비로움을 어찌하던지 실천하라는 것이다. 공덕으로 부자가 되어야지 애착심으로 부자가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말이다.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NEW 임해 밭 죽순 식물성 탈백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7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2,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폴리페놀은 항산화 능력(활성산소 제거)이 6년근 홍삼보다 65배, 블루베리보다 44배

임해 밭 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6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임해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 임해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 임해]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 경 상 도 010-4187-0062
강 원 도 019-396-1110 : 전 라 도 011-248-6298
충 청 도 010-6545-3350 :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